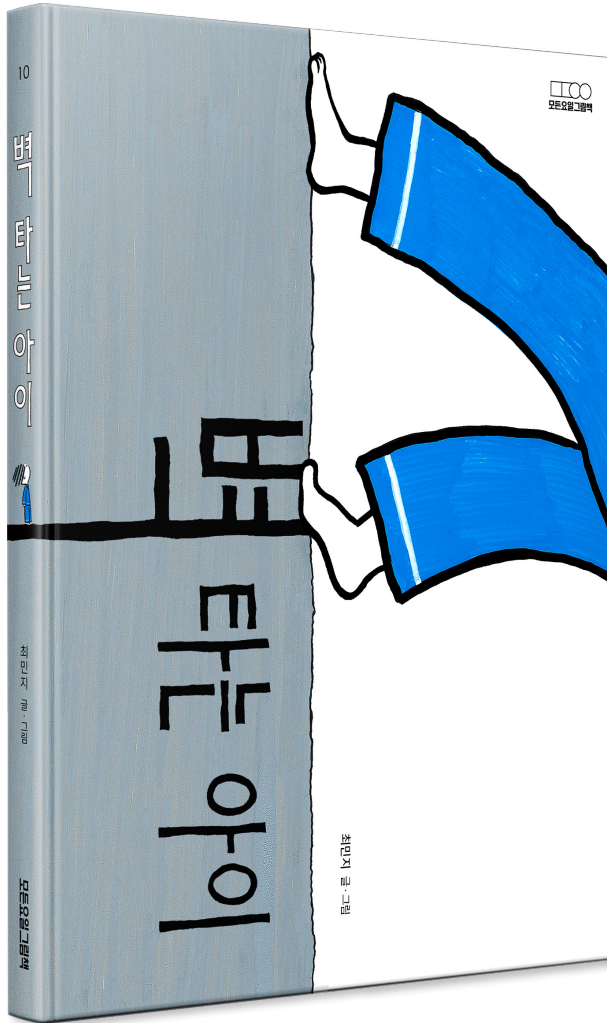


모든요일그림책 독서 활동지 <벽 타는 아이>

현직 초등 교사 집필 ·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수록



벽 타는 아이

최민지 글·그림 | 56쪽 | 15,000원 | ISBN 978-89-255-7602-2 (77810) / 978-89-255-2316-3 (세트) | 초등 전 학년 대상

교과 연계 (아래 학년·과목·단원에 해당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1 국어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 3-1 국어 6. 일이 일어난 까닭
- 4-1 국어 5. 내가 만든 이야기

- 2-2 국어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 3-2 도덕 1. 나와 너, 우리 함께
- 4-1 도덕 6. 함께 꿈꾸는 무지개 세상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선생님! 재가요, 이려고 이랬어요.” 울상이 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른 아이가 다가와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어느새 제 주위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매일 마주하는 교실의 풍경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갈등이 모두 다른 색깔을 띠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편을 잡은 지 수 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갈등의 원인은 대개 하나로 수렴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바로 ‘너와 나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인생이 있다는 말도 있듯이 생각과 성향, 취향이나 주어진 환경 등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것이 모두 같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질 때 우리는 처참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참상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도 종종 그런 벽에 부딪히곤 하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다름을 이해한다는 것은 큰 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 같이 외쳐 보라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벽 타는 아이》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른들과 그런 어른들의 편견 속에서도 마침내 날개를 펼친 어린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마을’의 어른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린이들을 갖은 방법으로 치료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결국 ‘이상한 아이’로 판정된 어린이는 ‘모자성’에 갇히고 말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보통마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모자성’으로 내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요. 상대방이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나와 달리 몸이 불편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요? 타인을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나조차도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인걸요. 아니, 애초에 ‘다르다’의 기준이 존재하긴 할까요?

관용과 배려가 부족한 세상에서 주인공은 마침내 곳곳해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와 손을 맞잡은 다른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대’라고 부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의 손을 기꺼이 잡을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벽 타는 아이》를 만난 순간, 이 책이 그 마중물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그림책을 읽고 활동하면서 관용과 연대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어느새 아이들은 다름을 향해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는 ‘다정함’에 한 발짝 다가서 있을 테니까요.

임수경(서울 성서초등학교 교사)

아이들과 함께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정함의 힘이 가장 강력하다는 말을 믿으며, 그림책과 동화를 통해 온기 있는 교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mon_ggu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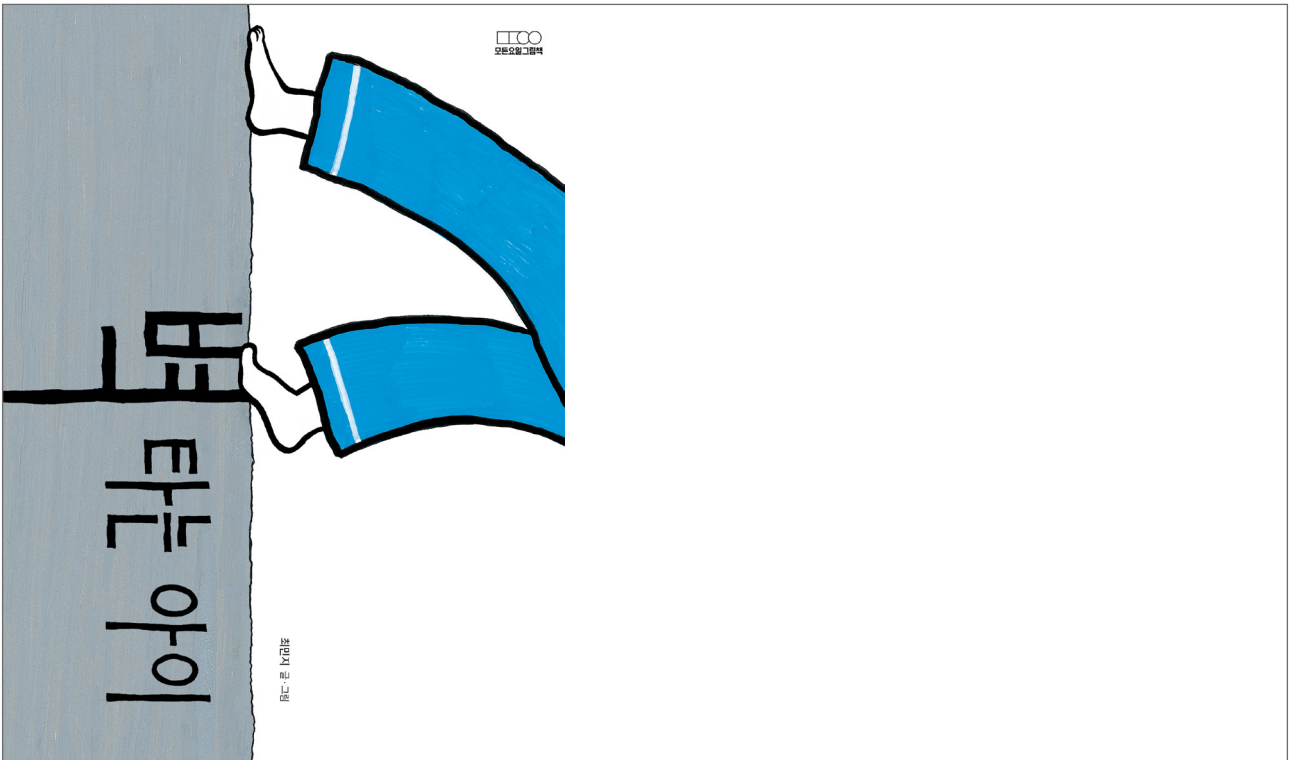
- ‘좋아서 하는 그림책 연구회’ 운영진
- 저서: 《그 아이의 비밀 노트》, 《무영이가 사라졌다》, 《이상한 규칙이 있는 나라》

미션 1 : 나만의 표지 꾸미기



책을 읽기 전, 표지와 제목을 살펴봅시다.

- ① 표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나머지 부분을 상상해서 빈칸에 그려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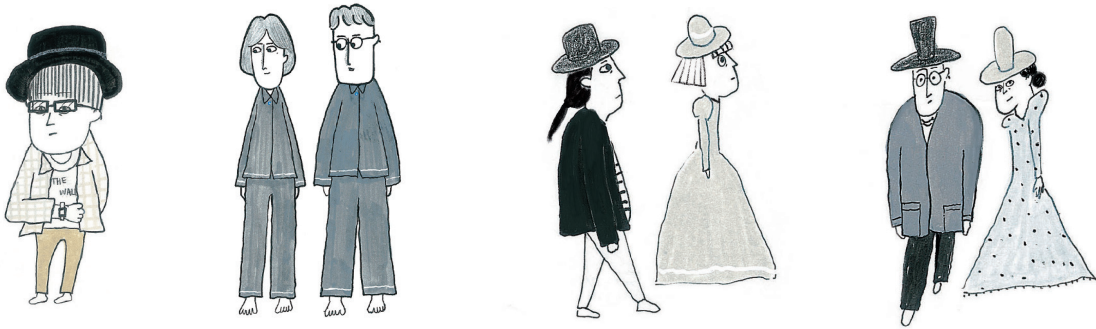
- ② 제목이 세로로 적혀 있나요, 가로로 적혀 있나요?
왜 그렇게 적혀 있을까요?

미션 2 : 다른 점을 찾아라!



주인공은 '보통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보통마을'에 사는 어른들과 '이상한 아이'들의 생김새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요? 책을 읽으면서 다른 점을 찾아 빈칸에 적어 보세요.

'보통마을'의 어른들



'보통마을'의 '이상한 아이'들



Five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answers.

미션 3 : '만약에'라는 마법



'만약에'는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 말이에요.
주인공의 성격이나 상황을 바꾸어 결말을 상상해 봅시다.

장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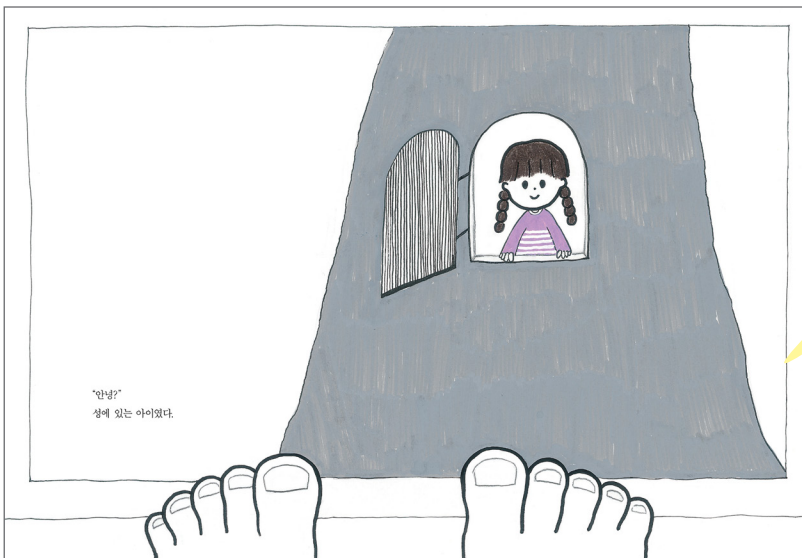
주인공의 벽 타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전문가들이 모여들지만,
주인공은 “그만! 나는 벽 타는 아이예요!” 외치며 그들을 뿌리칩니다.



만약에
주인공이 참고만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면 2

'모자성'에 갇혀 있는 아이를 발견한 뒤 주인공은
스스로 '모자성'에 가기로 결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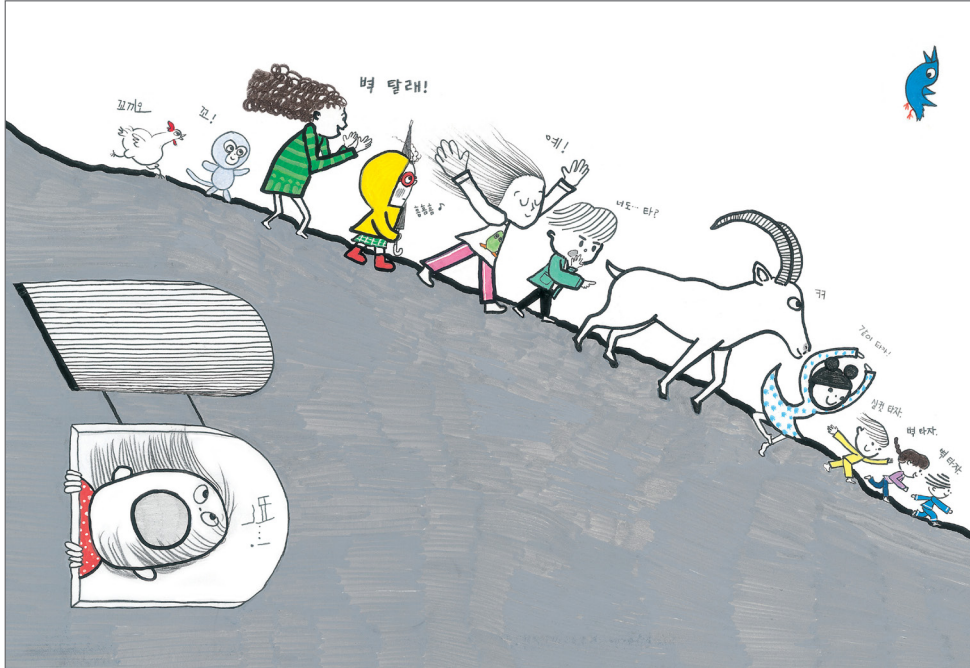


만약에
주인공이 '모자성'에
갇혀 있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션 4 : 그 아이에게 얽힌 사연



'모자성'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갇혀 있었어요. 벽을 타고 있는 아이 중 한 명을 골라 '모자성'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해서 적어 봅시다.



① 내가 고른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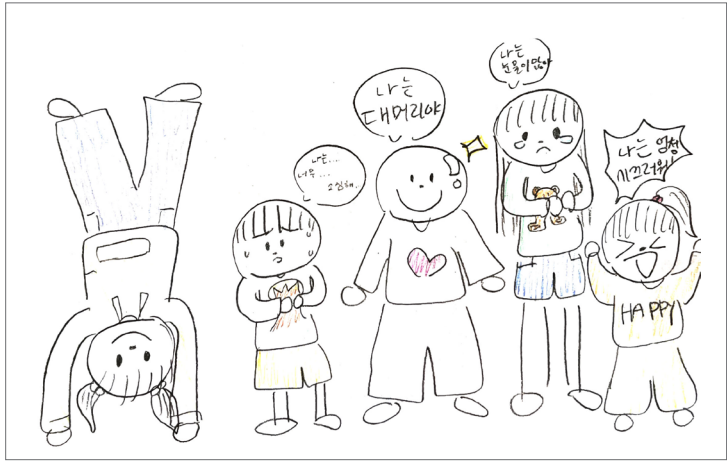
② 그 아이는 어떻게 모자성에 오게 되었을까?:

미션 5 : '모자성' 안의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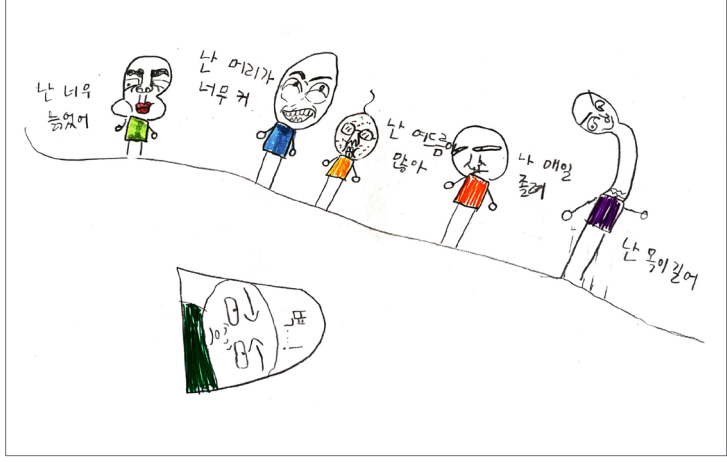


'모자성' 안에는 또 어떤 아이들이 갇혀 있을까요? 다른 친구들의 그림을 살펴보고 여러분이 상상한 모자성 안의 모습을 그려 봅시다.

예시 1



예시 2



예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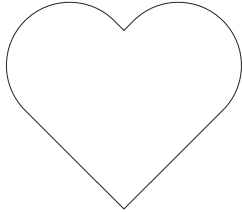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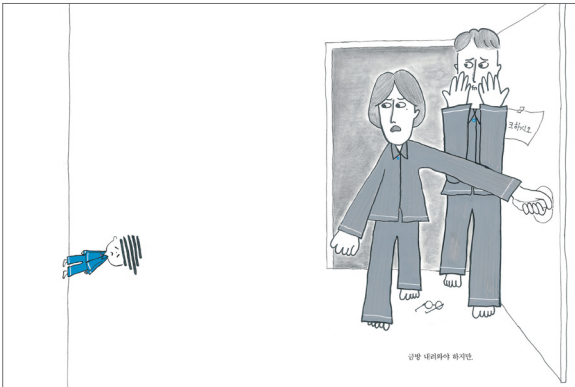
미션 6 : 마음의 색깔은?



각 장면을 보고 그때 주인공의 마음이 어땠는지 상상해 보고 하트 안에 마음과 어울리는 색깔을 칠해 보세요. 그 색깔을 고른 이유도 적어 봅시다.

장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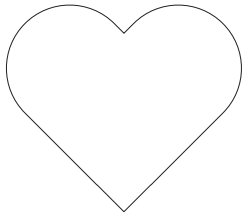
벽을 탄다는 이유로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을 때



이유:

장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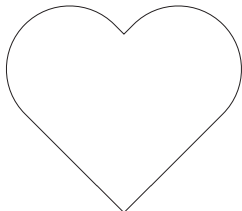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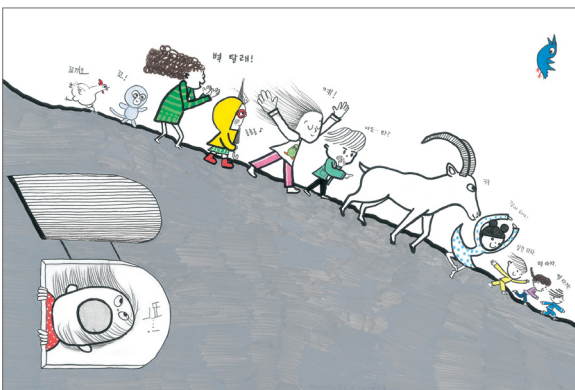
"그만!" 소리치며 어른들의 치료를 거부할 때



이유:

장면 3

'모자성' 안의 아이들과 함께 벽을 탈 때



이유:

함께 읽으면 더 좋은 책

《벽 타는 아이》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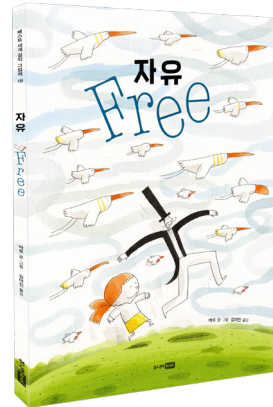
같은 길을 지닌 다양한 이야기는 아이가 세상을 좀 더 입체적이고 다채롭게 바라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타인을 향한 편견이 어떻게 연대와 공존,
한대의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알고 싶다면



《우리 마을에 온 손님》
박혜선 글 | 이수연 그림

아이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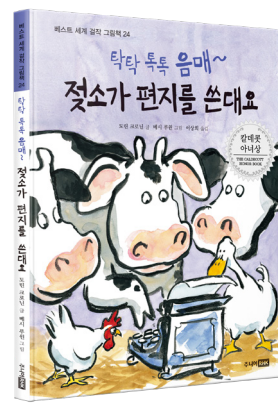
《자유》
바루 글·그림 | 김여진 옮김

벽 타는 아이처럼 무리로부터 소외되었지만
마침내 ‘나다움’을 되찾은 주인공을 만나고 싶다면



《커지고 커지고 커지고》
클라우디오 고베티 글 | 미켈레 리차르디 그림 | 이현경 옮김

‘힘없는 목소리’들이 품은 강한 힘과
연대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면



《탁탁 특특 음매~ 젓소가 편지를 쓴대요》
도린 크로닌 글 | 베시 르윈 그림 | 이상희 옮김